

부산은행, 혁신과 경쟁력 차별화로 동남권 선도은행 도약



1 안감찬 은행장 2 2022년 상반기 경영전략 회의

BNK부산은행(은행장 안감찬)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된 상황에서도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 부문에서 고른 성장을 이뤄냈다. 오히려 사상 최대의 자산 성장과 최고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면서도 역대 최상의 건전성을 확보했다. 이 바탕에는 효율적, 합리적 기업 문화 조성이 큰 역할을 했다. 안감찬 은행장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부산은행의 '신 금융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 아래 지난해 조직 역량 정비 및 강화를 위한 내부 혁신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취임 1년을 맞은 안 은행장은 올해를 '독보적 동남권 메가뱅크'를 향한 '도약의 해'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우선 디지털 채널을 통해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이종 기업과 제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영업권을 전국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 금융'과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새로운 경쟁자들과 차별화한 경쟁력도 모색한다.

부산은행은 '기업금융 전용 모바일뱅킹 고도화', '기업 여신 자동심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기업 고객이 체감하는 혁신을 진행 중이다. 종합자산관리 경쟁력 차별화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조직개편을 통해 신탁사업단을 자산관리본부로 편입하고 투자상품을 통합 관리해 시너지 창출을 꾀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만반의 준비를 한 끝에 유치한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사업도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무엇보다 부산은행은 동백전 이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는 물론, 200여 명으로 구성된 24시간 콜센터, 부산시 전역의 영업점 215곳, 자동화기기 1천 300여 대, 이동 점포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전 연령대가 언제 어디서든 동백전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 소상공인을 비롯한 동백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비금융 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부산은행은 동백전 사업 수익 전액을 모두 지역 사회에 환원할 방침이다. 부산은행은 지역 발전과 사회 환원을 위해 사회공헌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매년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는데 금액이 점차 증가해 최근 3년간 1천322억 원에 이른다. 당기순이익의 13.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최근 3년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사업에 초점을 맞춰 이들에게 2조2천억 원을 지원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은행은 지난해 말 아시아 3대 금융전문지인 아시아머니가 주관한 '2021 아시아머니 베스트 어워드'에서 '아시아 지역 최고 사회공헌 은행'으로 선정됐다. 올해 2월에는 제11회 서민금융대상에서 기관 부문 대상(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①

E이로운 S세상을 G그리다
BNK 금융그룹



빠르게 변하는 금융의 시대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고객과 지역을 위해
부산은행이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